

쇼핑·관광객 年600만명 찾아...인구 10만 지방 소도시 '천지개벽'

관광형 쇼핑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2〉여주시 프리미엄 아울렛 '대박'

여주와 파주, 광주와 제주 그리고 나주. 최근 '주(州)'자로 끝나는 도시가 대세다. 관광과 문화, 유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주로 끝나는 도시는 조선시대 20목에 속했던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1895년 갑오경장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 '큰 고을'을 뜻했던 행정구역 단위였다. 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부활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특히 쌀과 도자기 정도로만 알려졌던 여주가 프리미엄 아울렛의 대표 도시로 부상하고 관광형 쇼핑의 명소로 성공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짊어진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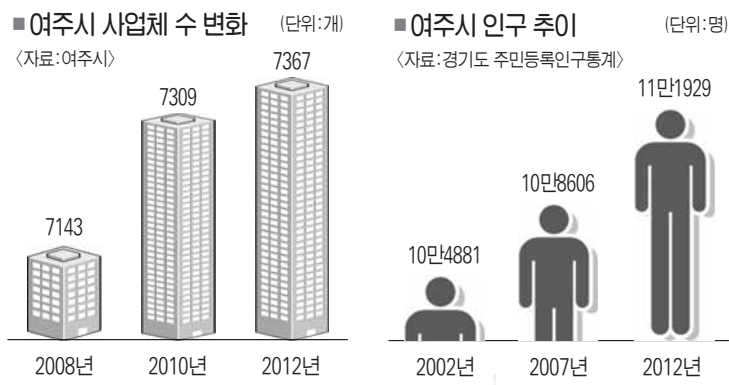
쌀과 도자기로 이름을 알렸던 여주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쇼핑 도시로 바뀌었다. 주말이면 쇼핑과 함께 관광을 위해 여주를 찾는 이들로 북적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식당 200여곳 늘고 특급호텔까지 들어서
기업도 늘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도움
영세상인들 피해...상생방안 여전한 과제

광주에서 승용차로 3시간 30분 달려 도착한 여주. 경기도 남한강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이곳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주말마다 찾는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이미 관광형 쇼핑의 명소가 된 것은 오직(?)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내·외국인 쇼핑객들로 북적거렸고 주차장은 밀려든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 휩싸여 허우적거리는 상황에서도 이곳만은 예외인 것 같았다.

쌀과 도자기 도시에서 쇼핑 명소로

관광형 쇼핑명소로 도약하며 지역경제 부흥을 견인한 여주는 우선 도시의 변모로 그 위상이 확인된다. 인구 10만이 갓 넘는 지방 소도시에서 불과했던 여주는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9월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이처럼 118년 만에 여주목의 화려했던 영광을 되찾게 된 배경에는 아울렛의 역할이 컸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7년 6월 개장했을 때만 해도 내국인에게도 다소 생소했던 여주가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교적 높았다. 여주는 전통적으로 쌀이나 고구마 같은 농작물과 도자기로 알려진 곳이었다. 쇼핑 공간은 '중앙동'이라 불리는 여주시청 앞 시내뿐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결과는 '대박'에 가까웠다. 한 해 아울렛 방문객 수는 2008년 250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등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버버리나 페라가모, 펜디,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 145개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수제 햄버거 전문점 등 외식 공간까지 갖춘 쇼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09년에는 지역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아울렛 타운인 '여주375아울렛'이 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옆에 들어서 이 지역 일대가 하나의 '쇼핑 클러스터'가 됐다.

'아울렛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성공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는 입지 장점이 최근 몇 년 사이 여주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시내 사업체 수는 2008년 7143개에서 2012년 말 7367개로 각각 늘었다. 지역에서 고용 창출 기여도도 높다. 현재 1000여 명의 직원 중 90%가 여주에 살고 있고, 65%가 여주 태생이다. 2015년 확장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8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지역 출신인 허영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점장은 "아울렛이 오면서 지방 소도시가 많이 변했다"며 "식당만 200여 곳이 늘었고,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특급호텔도 들어서 상업중심지로 안다"고 말했다. 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25억원으로,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직전(1592억원)과 비교해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연 22만명 몰려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쇼핑 명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전히 기대가 크다. 관광형 쇼핑명소,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비 장

구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설악산, 강릉, 평창 등의 강원도 일대 레저·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여주는 그 기대를 현실화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쇼핑명소 이름을 알리면서 여주 아울렛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개점 첫 해 2만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연간 22만명을 넘어섰다.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음식업의 매출 상승도 성과다. 쇼핑객들이 여주에서 묵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신 여주시 지역경제과장은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이후 대규모 국내의 관광객이 꾸준한 여주시를 방문함에 따라, 한국중앙수석박물관, 여주 박물관, 수상레포츠센터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지자체-유통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목표로 하면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상생 노력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통업체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관광 상품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만든 여주 특산물 판매 공간인 '그린마켓'이다. 185㎡ 규모의 공간에서는 쌀, 고구마 등 여주 특산물과 도자기 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여주시도 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아울렛 옆에 8만2378㎡ 규모의 농촌테마파크를 지어 곧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상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공에 가려서 안보일 뿐 중소상인들의 소규모 매장 매출은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온다. 세계화시대 국내 유통시장 개방 여파가 이제는 중소도시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초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유통업계의 또 다른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걱정이 벌써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주=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 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니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도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담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웅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돌변 배 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재 관

급히구합니다

- 1)빌딩 : 현금8억,15억,30억 손본 각각 대기중 바로 계약들어갑니다
- 2)상가 주택 : 현금2억보유자3명, 현금5억보유자7명대기하고있습니다
- 3)점포 : 푸제식당1명,갈비집3명,중화요리2명, 패스트리1명, 노래방2명등 많은분들이 대기중입니다

다음카페(즐거움부동산세상)를 클릭 해 보세요!

다음 부동산, 개발정책, 생활정보, 취득양도관련 세무영역의 전문가들의 강좌도 다양해요

[급 매]

- 1)총장로 원동대165㎡ 급매2억7,000(보통1억 월510별도) 월14%대 수익
- 2)롯데백화점인근 모텔 대236㎡건185㎡ 료25 급매7억월건축비도인도
- 3)예술의 거리 입구 대188.4㎡ 4층 건물 대2억천천천 별도건장가 4억천

이밖에도 많이요=맞춤 서비스합니다

[급 임대]

- 1)식당1층33㎡ /66㎡/120㎡ 등(최고요식)급매물 확보중
- 2)다용도및사무실 대로변1층,지하,3층,10층등 평수별,금액별 좋은 매물 다량보유중입니다
- 3)원룸,투룸 =죽임,싸고,깔끔한 매물 다량 보유

부동산이라면 지역,종류,금액 상관 없이 무엇든지 연락주세요 7일 이내에 [가부명사] 처리하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동부소방사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년6억 수익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른,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물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